

# 소상공인 “인건비 폭탄, 제정논의 즉각 중단해야”

## 코웨이 “33cm로 더 슬림하게” 아이스 스탠드 ‘3.0’ 선보

일일 제빙량 13.6kg 얼음정수기

코웨이가 슬림한 크기에도 넉넉한 얼음을 제공하는 스탠드형 얼음정수기 ‘아이스 스탠드 3.0’ (사진)을 출시했다.

4일 코웨이에 따르면 아이스 스탠드 3.0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부족함 없이 얼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품 크기는 줄이고 제빙 성능은 강화했다. 가로 33cm 크기로 기존 모델 대비 약 11% 부피를 줄여 좁은 장소에서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얼음 저장고는 3kg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며, 일일 제빙량은 두 배로 늘어난 13.6kg을 구현해 하루에 최대 약 1246개의 얼음을 생성한다. 특히 16분마다 신선한 얼음을 생성하는 쾌속 제빙 기술력을 탑재해 전자 대비 약 23% 빠른 속도로 얼음을 공급해준다.

아이스 스탠드 3.0 정수기는 물을 받는 추출구 부분의 효율성과 편의를 높였다. 추출 공간은 27cm로 넓어져 긴 물병도 기울이지 않은 채로 안정감 있게 올려두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얼음과 물이 동시에 나오는 ‘얼음물’ 기능이 적용돼 각각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으며 3단계 맞춤 추출(약 500mL, 700mL, 1L)로 필요한 용량만큼을 원터치로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소공聯,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반대 TF’ 꾸려 5월까지 서명운동 통과 시 1인당 年 505만원 ↑ 추산 국회서 관련법 다수 발의 잇따라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보호 취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소공연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관련법이 제정될 경우 인건비가 크게 올라가거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폭탄을 맞을 것이라 우려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까지 개정돼 결국 자신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소상공인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업자노무제공계약체결시노무내용 등 서면으로 작성·교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정해진 시기에 직접 통화로 전액 지급 ▲일하는 사람 공제회 설립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현 이재명 정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 과제(93·94)로 설정해 놨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까지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9월까지 기본법 시행을 위한 사업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소상공인 관련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TF’를 꾸리고 오는 5월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공연은 앞서 지난달 말 열린 정기총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공연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싹틔움인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에 극심한

내수부진과 온라인 플랫폼의 공세로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기본법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이 기본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길을 열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법이 시행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비용은 1인당 월평균 42만원, 연간 505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학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관련법 제정 추진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설명하는 등 향후 업종별·지역별 설명회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강석진, 거제 조선소 찾아 ‘해결형 지원’ 가동

(중진공 이사장)

## 삼성중공업 협력사와 간담회 인력난·네트워크론 확대 건의 촉구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조선업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관련 중소기업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중진공은 4일 오후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삼성문화관에서 ‘K-조선’ 중소기업 도약을 위한 ‘찾아가서, 해결하는 중진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방호열 삼성중공업 상생협력총괄, 윤진석 사내협력사 협의회장 등 16명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91개사가 간담회를 참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부가가치 선박 임가공에 따른 자금 지원 확대 ▲조선업 인력난 해소 ▲협력사 대상 네트워



4일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중진공 현장간담회에서 강석진 이사장(왼쪽 3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중진공

크론 확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개진했다. 강 이사장은 오랜 기간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기술력을 지켜온 조선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찾아가는 중진공’을 넘어 현장 애로 해결에 중점을 둔 ‘해결하는 중진공’ 방식으로 운영됐다. 정책자금과 인력지원 등 중진공의 주요사업 안내를 비롯해 제3차 부당개입 방지에 대한 설명은 기존처럼 진

행하고 별도로 마련한 상담부스를 통해 참관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과 맞춤형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현장 해결형’ 지원방식을 강화했다.

강 이사장은 “대한민국 조선업이 다시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산업현장을 지켜온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K-조선의 도약 엔진이 힘차게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해결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5월 삼성중공업과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지역별 앵커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웅진프리드라이프

### 월낙원, 서울 첫 직영점 ‘서울제중 장례식장’ 개장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서울에 첫 직영 장례식장을 열었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장례식장 브랜드 ‘월낙원’의 16번째 지점 ‘월낙원 서울제중 장례식장’을 개장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제중점은 연면적 965㎡(289평)으로 최대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10㎡(63평) 규모의 특 3호실을 포함해 총 6개의 빈소를 갖췄다. 용품 전시실, 휴게공간, 영결식장, 참관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돼 유가족들이 편안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프리미엄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지점은 구로역 인근에 위치해 높은 접근성을 자랑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빈소 및 사전상담 할인 혜택을 마련해 고품격 장례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월낙원은 웅진프리드라이프가 고객에게 차별화된 장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선보인 국내 최초 전문 장례식장 브랜드다. ‘월낙원’이라는 명칭은 휴식을 의미하는 ‘쉼(休)’과 아름답고 영원한 안식처를 뜻하는 ‘낙원(Paradise)’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승호 기자

## 기보, 지역 스타트업 성장 지원 나선다

### 중진공·경남은행과 업무협약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BNK경남은행과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기보는 4일 경남 창원시 경남은행 본사에서 ‘스타트업 혁신 성장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기업지원 역할을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의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경남은행과 중진공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자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HAIN-G’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중진공은 ‘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지원 인프라를 공유해 창업기업에 대한 One-Stop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모사업, 설명회, 투자상담회 등 공동사업을 기획·운영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동화일렉트로라이트, R&D 로드맵 공개

### ‘인터배터리 2026’ 참가 대응형 전해액 연구현황 등 공유

동화기업 계열사 동화일렉트로라이트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 참여한다. 4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동화일렉트로라이트는 ▲R&D 로드맵 ▲국내외 규제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선보인다.

R&D 로드맵에서는 핵심 역량인 다기능성 전해액 첨가제를 비롯해 ▲초고용량 배터리용 고성능 전해액 ▲LFP·LMR 배터리용 고가성비 전해액 ▲전

고체 및 리튬황을 포함한 차세대 소재 등 다양한 시장 대응형 전해액의 연구현황과 중장기 목표를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R&D와 품질 분야에 도입한 AI 및 데이터 도구 활용 사례 등 디지털 혁신 현황을 알린다.

국내외 규제 대응 전략도 제시한다. ▲핵심 공급망 구축 현황 ▲글로벌 배터리 규제 대응책 ▲ESG 실사 대응 체계를 소개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발맞춘 비즈니스 방향을 강조할 계획이다.

부스 내 콘텐츠는 전해액의 제조 특성을 시각화해 디자인했다.

/김승호 기자